

스몰캡

2026년은 히트펌프 원년

2026년 히트펌프 산업 개화 원년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작은 에너지로 많은 에너지를 열 형태로 공급하는 열변환 기기이다. 열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히트펌프의 핵심 원리는 냉장고나 에어컨의 작동방식을 거꾸로 이용(역카르노 사이클)하는 것이다. 에어컨이 실내의 열을 빼앗아 밖으로 내보내 시원하게 만든다면, 히트펌프는 겨울철에 외부 공기나 땅, 물속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해 실내로 옮겨와 따뜻하게 만든다. 여름에는 이 과정을 역을 진행, 냉방기로 전환된다. 냉난방기로 불리는 이유이다.

정부에서 히트펌프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비 144.5억원을 투입해 보급을 확대한다. 단독주택 중 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98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급은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제주와 경남부터 시작한다. 이후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69만대,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도 기대하고 있다.

히트펌프의 장단점

히트펌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적이다. 연소 과정이 없어 난방시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둘째, 높은 효율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셋째, 설치 가능한 공간이 다양하다. 가정용 냉난방 뿐 아니라 산업공정의 가열 및 냉각,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농촌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단점으로 주목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설치 비용이 기존 난방기대비 고가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지원 통해 관련 우려감은 해소시킬 예정이다. 둘째, 겨울철 성능 저하로 난방에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실증 연구를 통해 영하의 온도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히트펌프 관련기업

국내 히트펌프 제조 6개사가 존재한다.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009450)**, **대성히트에너지(대성산업(128820) 100% 자회사)**, **센추리**, **오텍(067170)**가 이에 해당된다. 경동나비엔은 2025년 4월 21일 영국에서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 PEM750을 공개했으며, 대성히트에너지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DC 인버터 시리즈와 지열 히트펌프 등을 선보인바 있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경동나비엔	Not Rated ()	- ()
대성산업	Not Rated ()	- ()
오텍	Not Rated ()	- ()

히트펌프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을 생산하는, 작은 에너지로 많은 에너지를 열 형태로 공급하는 열변환 기기이다. 열을 직접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히트펌프의 핵심 원리는 냉장고나 에어컨의 작동방식을 거꾸로 이용(역카르노 사이클)하는 것이다. 에어컨이 실내의 열을 빼앗아 밖으로 내보내 시원하게 만든다면, 히트펌프는 겨울철에 외부 공기나 땅, 물속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해 실내로 옮겨와 따뜻하게 만든다. 여름에는 이 과정을 역을 진행, 냉방기로 전환된다. 냉난방기로 불리는 이유이다.

히트펌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적**이다. 연소 과정이 없어 난방시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는다. 기기 가동을 위해 전기가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제로 탄소 배출 난방 시스템이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 히트펌프 보급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이유이다.

둘째, **높은 효율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초기 설비 비용은 기존 난방기기 대비 많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히트펌프는 전기히터의 2~3배, 석유 등을 연료로 하는 난방기기 대비 1~1.5배 효율이 높다. 즉, 전기 난방기기를 히트펌프로 대체할 경우 전력 소모를 1/3 이하로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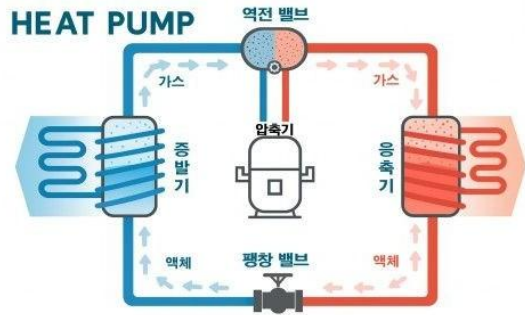
셋째, **설치 가능한 공간이 다양**하다. 가정용 냉난방 뿐 아니라 산업 공정의 가열 및 냉각,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농촌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단점으로 주목받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설치 비용**이 기존 난방기기대비 고가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히트펌프 설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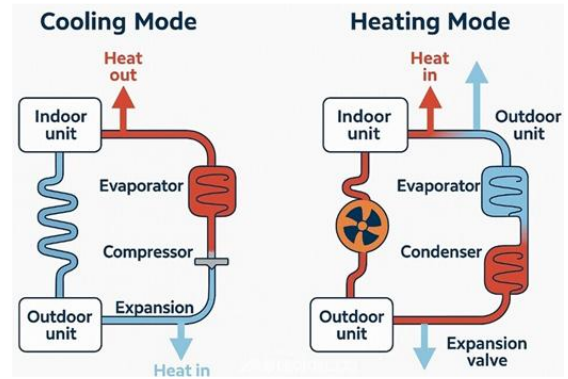
둘째, **겨울철 성능 저하로 난방에 부적합**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영국 정부 산하 독립 연구기관(ESC, 에너지시스템스 캐터펄트)에서 2년여간 수행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는 기온이 -6°C 로 떨어졌을 때 평균 2.44를 기록했으나, 연평균 2.9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EU의 재생에너지 인정기준(SPF 2.875)를 충족하는 수치이다. 유럽의 기후변화 싱크탱크 규제지원프로젝트(RAP)가 5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도 공기열 히트펌프가 -20°C 환경에서 평균 COP(Coefficient Performance, 열펌프 성능계수) 2를 유지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IEA에 따르면 겨울철 평균 기온이 -7°C 인 노르웨이에서 전체 가구의 2/3이 히트펌프를 설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림 1] 히트펌프 작동방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히트펌프 작동방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25/12/16)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이 목표이다.

히트펌프는 주변(공기, 땅, 물 등)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이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 중심 보급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문별/단계별 보급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①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 지원.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요양 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을 지원한다. ②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설치 보조, 공공시설 시범 보급. 목욕탕·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청사·공공시설 등에 히트펌프 등 고효율설비와 태양광·ESS 등을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③예산 지원사업의 검토후 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 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에 히트펌프 가중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기열 재생에너지 인정으로 히트펌프 보급 날개단다(26/3/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4일 난방 전기화 산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3일 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공식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지열·수열과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6년을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온난지역 중심(제주·경남 등)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 대상으로 보급 지원할 계획이며,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여 기업은 국내 히트펌프 제조 6개사 등이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대성히트에너지(대성산업 자회사), 센추리, 오텍 캐리어**가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히트펌프 설치기업-진연상사, 이지글로벌, 축열조 제조사-썬빅대성에너지, 기상발전소 사업자-나눔에너지 등의 기업이 참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히트펌프 본체(550~700만원)과 온수 저장탱크(200~300만원) 구입+배관 및 전기 공사 등 설치비(100만원)을 감안시 가구당 1,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고려시 향후 10년간 시장규모는 35조원, 연간 3.5조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정부는 올해 국비 144.5억원을 투입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히트펌프 관련 시장규모는 361.25억원이며, 가구당 1,000만원의 설치비가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약 3,600가구를 지원한다는 것을 역산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국내 히트펌프 제조기업은 6개사이며, 연간 3.5조원 시장규모에서 5% 시장점유를 차지할 경우 1,750억원, 10%의 경우 3,5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열에너지 혁신전략(26/04/15)

지난 4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열에너지 혁신전략을 공유했다. 비전은 열에너지 혁신으로 실현하는 탈탄소화 전환이다.

추진배경은 첫째, 기후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열에너지 부문의 중요성 부각이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의 48%(수송 27%, 전력 21%, 기타 4%)를 소비하고 있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이행 부문으로 관심이 대두된다. 둘째, 국내 열에너지 이용 구조의 심각성 및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화석연료로 생성되는 열에너지는 주요 탄소 배출원(화석연료의 열 공급 비중 96.4%)이지만, 재생열의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셋째,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전기화 수용력 확보이다. 건물 난방 및 급탕과 산업공정의 열 부문을 히트펌프 등 전기기반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 확보를 넘어 국가 열 공급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넷째, 열에너지 안보 확립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이다.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약 93%,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구조로 지정학적 갈등에 극도로 취약한다. 재생열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의 전환은 대외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경제의 자립 기반을 공급하는 안보 핵심이다.

정리하자면,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트렌드와 더불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수급에 대한 위기감을 개선하기 위해 열에너지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방안으로 히트펌프 등 전기기반 설비의 전환이 있어, 히트펌프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열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해외 동향은 다음과 같다. ①EU는 강력한 화석연료 퇴출 및 건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2040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열생산 설비(보일러 등)를 전면금지하고, LNG 기반 열병합발전 등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②미국은 신규 건물의 완전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목표 등 청사진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단독 2030년까지 히트펌프 6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뉴욕 등 주택 신축시 2029년 이후 화석연료 설비 설치 금지 또는 전기화 의무 추진을 하고 있다. ③중국은 청정 난방 정책 기반 탈탄소화 추진하고 있다. 저온 산업 폐열을 히트펌프로 승온하여 도시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북미, 유럽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화석연료 감축과 관련하여 히트펌프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목표는 3가지이다. 첫째, 재생열 확대이다. 2024년 3.6%→2030년 15%→2035년 35%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둘째, 히트펌프 보급확대이다. 고효율 히트펌프 누적 보급 기준 2030년 69만대에서 2035년 350만대로 확대 설정되어 있다. 셋째, 재생열 네트워크를 현재 5,600km에서 2030년 7,000km, 2035년 9,000km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에너지 정책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이다. 열 에너지 활용 및 지원 제도 구축, 열 데이터 관리 기반 구축 및 고도화, 열 거래 시장 활성화 및 인프라 고도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열원별 효율, 품질, 계통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도입하고, 재생열 의무화 제도 (RHO, Renewable Heat Obligation)와 연계할 예정이다.

둘째,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이다. 재생열 공급 의무화 도입, 집단에너지 재생열 전환 가속화, 미활용열 회수/활용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대규모 열 공급자에게 열 공급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제도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간접기열 위주인 150℃ 이하 중저온 공정열에 대해 우선적으로 히트펌프와 전극보일러 등을 통한 전기화를 추진한다.

셋째, 히트펌프 보급 및 재생열 이용 촉진이다. 재생열 이용을 촉진하며 섹터 커플링을 통한 유연성 확보, 건물 난방 전기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 재생열 이용 의무화, 재생열 중심의 기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혁신 및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열 이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난방 전기화를 위해서 히트펌프 패키지 보급 확대를 제시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 히트펌프 보급 지원 및 전국 확대 추진 & 공급주택 등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지원 사업 신설 추진될 예정이다.

넷째, 열 산업 생태계 강화이다. 열에너지 혁신 R&D 로드맵 마련 및 추진, 열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인식 개선, 열요금 개선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이 있다.

세부전략을 통해서도 열에너지 활용방안에 히트펌프가 Key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열에너지 해외 정책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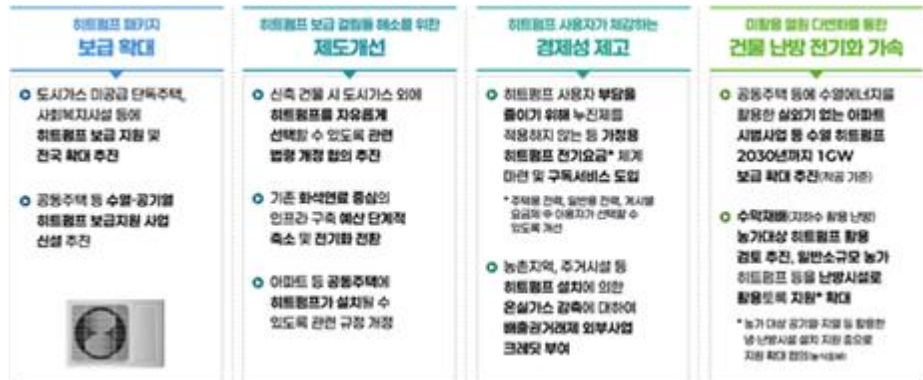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열에너지 혁신전략 비전과 및 목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열에너지 혁신전략 세부 추진 과제-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촉진 관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기업 동향

삼성전자

유럽시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히트펌프를 국내에 선보이며 난방 전기화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26.4월 히트펌프 제품을 국내 출시, 관련사업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냉난방고조 시장에서 입지 확대할 예정이다.

출시된 제품은 EHS올인원이다. 2026년 1월 유럽에 선 출시한 제품으로 주거·상업시설의 실내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물과 공기를 동시에 활용해 냉난방 운전을 할 수 있고 온수까지 제공하는 올인원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영하 25°C환경에서 난방운전이 가능하고, 최대 65°C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폐열 재활용 기능, 기존 냉매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가 약 68% 낮은 R32냉매 적용,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스마트싱스 기반의 AI전략모드 등의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LG 전자

2026년 3월 이탈리아에 열리는 모스트라 콘베뇨 엑스포(MCE) 2026에 참여해 주거용·상업용·산업용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공개했다. 주거용 전시 공간을 마련, 유럽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AWHP)를 중심으로 난방, 냉방, 급탕 시스템을 포괄하는 HVAC를 전시했다.

2025년 9월에 신제품 'LG듀얼쿨시에어'를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에 출시했다. 출시에 앞서 스웨덴 노를란드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25°C에서 성능이 100% 발휘했다고 공유한바 있다.

경동나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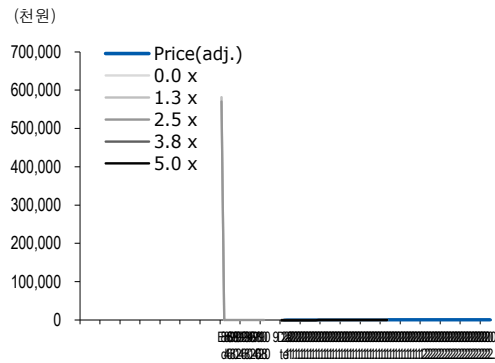
경동나비엔은 2025년 4월 21일 영국에서 주택용 공기열 히트펌프 PEM750을 론칭했다. 친환경 R290 냉매와 인버터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3에 불과, R32(지구온난화지수 700수준) 대비 친환경적이며, 소음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소음피해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미국법인에서 NAZ 공기열 히트펌프 등 HVAC 신제품 3종을 공식 출시했다. NAZ공기열 히트펌프는 고효율 모델로 폭넓은 작동 온도 범위, 저소음 설계, 친환경 냉매 등의 강점이 존재한다.

2025년 2월 AHR EXPO 2025에 참가, 히트펌프기술을 적용한 온수기 HPWH(Heat Pimp Water Heater)도 출시했다. 스테인리스 탱크를 적용해 부식에 강하고 위생이 우수하며, 제품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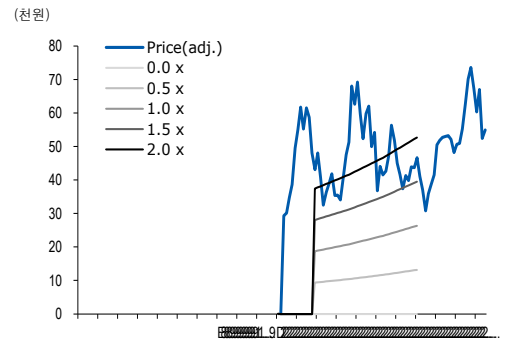
대성히트에너지스

대성히트에너지스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DC 인버터 시리즈를 공개했다. 정밀한 인버터 제어기술을 통해 운전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친환경적인 R32 냉매를 적용했다. -20°C ~+45°C까지 폭넓은 운전범위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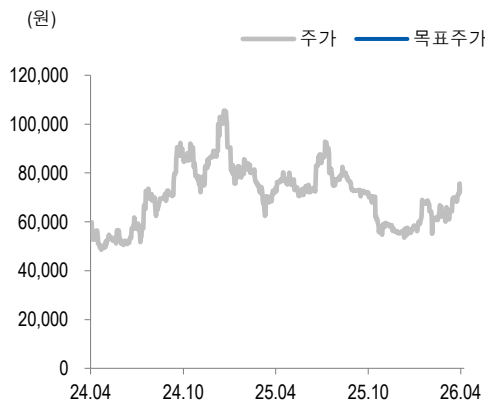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경동나비엔 (0094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2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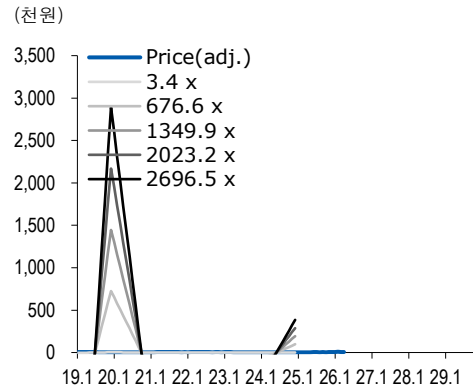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이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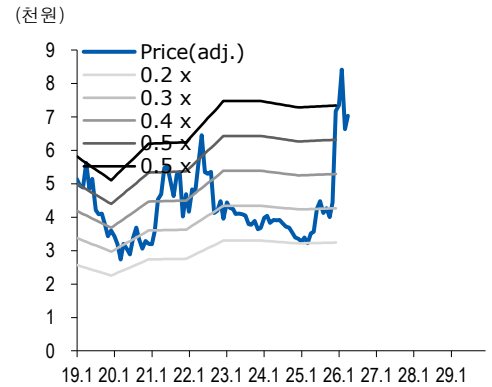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6-04-29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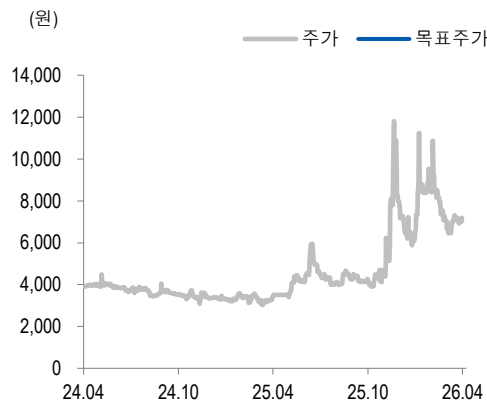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대성산업 (1288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2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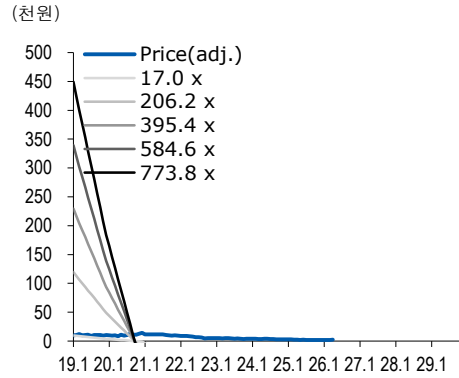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등급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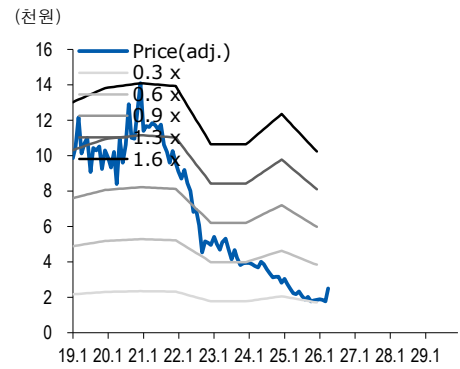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6-04-29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선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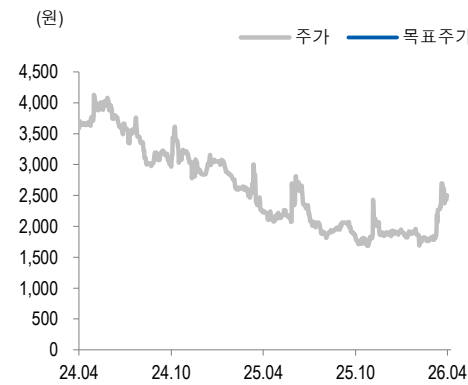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오텍 (06717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4-2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9
Hold(중립)	5.1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4-29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